

공개된 정보

2018년 4월 17일 저녁 7시경, 내과 전문의 이찬호가 진 병원의 신관 1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찬호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스타 의사로 떠오르던 중이었고 원장의 막내딸인 김가원과과의 정혼으로 차기 원장 내정 소문까지 있었다. 신관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당일에는 개인 짐 정리와 병실 내부 및 기기 점검을 위해 병원 관계자 몇 명만 들어가 있었다. 이찬호가 숨진 장소는 신관 13층의 격리병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입가에는 타액이 남아있고 옷매무새는 상당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격투의 흔적은 없다. CCTV는 마침 6시부터 7시까지 점검을 위해 꺼져 있었기에 그사이에 누가 격리병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장에 있던 인원 중 알리바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당신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어 당신의 무죄를 밝히고 범인을 찾거나, 혹은 당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다른 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야 한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담당 구역 점검 시작. CCTV 꺼짐
	최혜민, 13층 간호사실 점검
	김가원, 14층 마취과 점검
	김득진, 14층 원장실 점검
오후 6시 30분	최혜민, 13층 휴게실 잠깐 들름
오후 6시 55분	최민성, 병원 도착
오후 7시	최혜민, 13층 격리병실에서 최초로 시체 발견
오후 7시 1분	최민성, 비명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4분	김득진, 최혜민으로부터 전화 받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6분	김가원, 응성거리는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최민성(38)



최민성(38)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아들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의학 잡지 '위클리메디컬'의 기자다. 일찌감치 결혼해 부인과 아들이 있었지만 6년 전에 별거를 시작하며 혼자 살게 되었고, 4년 전에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혼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들 윤재의 죽음. 아들은 4년 전 12세의 나이에 난치병으로 투병하다 죽었고, 당시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이 바로 진 병원이다. 그리고 당시의 담당 의사는 이찬호. 아들의 죽음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투병 중인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아들의 투병과 죽음은 당신에게는 사실상 지워진 시간이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최근에 시작되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사례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였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사고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케이스들을 보며 당신은 윤재의 죽음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물론 윤재의 죽음에 사건성이 있을 거라는 근거는 없었다. 다만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지 않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다.

일단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를 해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미에 차지 않았다. 당신은 진 병원의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다. 물론 당신은 사실 진 병원에 평소 호의적인 기사를 쓴 적은 없다. 오히려, 진 병원을 비판하는 기사라면 차고 넘치게 썼을 정도다. 대형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로서의 태도도 있었지만, 위클리메디컬 자체가 가진 방향성 때문이기도 했다. 위클리메디컬은 사실상 UH그룹의 영향권 하에 있으며, UH그룹은 진 병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UH그룹은 보험회사인 UH라이프를 기반으로 경비보안, 의료기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약 기업인 UH제약의 경우 압도적인 점유율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당신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이찬호에게 연락했고, 인터뷰를 빙자해 그를 만나기로 했다. 물론 편집부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오늘 오후 6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한 당신은 신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곧장 약속장소인 13층으로 올라갔다. 온 김에 원장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당신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환경미화원에게 원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원장실은 14층. 원장도 신관에 와 있다고 한다. 신관 13층에 도착한 당신은 진료실의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가 6시 30분경. 이찬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이찬호는 '45분까지 갈 테니 진료실에서 기다려달라'라고 답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10분 남짓 남의 진료실에 혼자 있게 된 것이 난감했지만, 잘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찬호의 진료실을 조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바깥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당장 누가 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걷고 있긴 했지만, 그 간호사는 금세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을 굳힌 당신은 진료실에 있는 이찬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지던 중 당신은 엘리베이터 소리에 행동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은 이찬호가 아니라 아까의 간호사였다. 이때가 6시 40분.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간호사가 격리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의 20분이 지나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짹 짹 놀라 격리병실로 뛰어 들어간 당신은, 바닥에 쓰러진 이찬호의 시체와 우두커니 서 있는 간호사 최혜민을 발견했다.

* 추가 정보(게임 중 노출될 수 있는 당신의 기명 기사 목록)

팬타닐의 추억(위클리메디컬 기제): 2002년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 인질극 사건 당시 러시아 정부가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마취제 할로세인이 혼합된 가스를 현장에 살포했으며, 그 결과 인질 중 100여 명이 사망했다. 주된 사인은 질식사. 진병원 포함 3개 대형 병원 리베이트 의혹: 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대규모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제약회사들이 병원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대가성의 리베이트 지급을... UH라이프·유성대학병원 제휴 맺어...보상↑: UH라이프가 유성대학병원과 제휴를 맺고 제휴 병원 연계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제휴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경우 보상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상품으로써 보험료 대비...

당신의 시간대별 실제 움직임

오후 6시 20분	병원 지하주차장 입장
오후 6시 25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13층 도착
오후 6시 30분	진료실 도착, 이찬호에게 전화
오후 6시 33분	전화 끊음
오후 6시 34분	복도를 걷고 있는 최혜민 목격. 진료실 조사
오후 6시 40분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봄. 격리병실로 들어가는 최혜민 목격
오후 7시	최혜민의 비명 들음
오후 7시 1분	격리병실 도착